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0. 14(금)

유럽

- 튀르키예, 대테러작전으로 한 달간 테러범 145명 체포
 - 10.6 튀르키예 내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쿠르드 노동자당(PKK) 등 테러단체 상대로 총 13,794회 대테러작전을 전개, 테러범 145명*을 체포하고 19명을 사살했다고 발표
 - * △PKK 113명 △ISIS 관련자 23명 △극좌 테러단체 9명/테러지원 혐의 1,477명 별도 구금
- 프랑스, 前 대통령 '니스 차량테러' 관련 법정 진술
 - 10.10 「올랑드」 前 프랑스 대통령은 특별테러법원에서 진행 중인 니스 차량테러('16.7월, 사망 86) 재판에 출석해 “同 사건은 파리 테러('15.11월, 사망 130) 이후 삼엄한 경비 중 발생한 테러였다”고 진술
 - * 주범 「부렐」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으며, 공범 8명에 대한 재판 진행 중

미주

- 콜롬비아, '정부-반군 평화협상' 재개
 - 10.5 언론은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인 민족해방군(ELN)이 '19년 이후 중단된 평화협상을 11월 첫째 주 이후 재개할 것이며, 베네수엘라·쿠바·노르웨이가 협상 보증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도
 - * 「안토니우 구테흐스」 UN 사무총장은 UN은 평화회담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“결의안은 콜롬비아 평화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”고 언급
- 美 대통령, 변경된 '대테러 드론작전' 정책 승인
 - 10.7 美 대통령은 국방부·CIA의 대테러 드론작전시, △암살보다 체포 우선 고려, △치명적 드론공격 작전시 사전 대통령 승인 획득, △국외작전시 해당국 주재 국무부 책임자 승인 획득 등 정책을 승인
 - * 다만, 同 변경 정책은 소말리아·예멘·아프간 등에 적용되며, 전통적 戰場 지역으로 평가되는 시리아·이라크에는 未적용

아 · 태평양

○ 아프간, 탈레반 재집권 1년간 GDP 25% 감소

- 10.5 유엔개발계획(UNDP) 아태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“아프간 GDP가 지난해 200억(28조원) 달러 수준에서 탈레반 재집권 1년 만에 50억달러(7조원)가 감소, 재앙적 수준의 경제붕괴 상황”이라고 발표
- * 아프간內 일자리 70만개 감소, 인구의 95~97%가 빈곤선 이하

○ 태국, 전직 경찰관 ‘보육시설’ 총기 난사

- 10.6 언론은 지난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해고된 전직 경찰관이 태국 북동부 보육시설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, 영유아 24명 포함 38명을 살해한 뒤, 아내·아이까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
- * 태국은 무허가 총기 412만정(추산)을 포함해 민간 소유 총기가 1,034만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, '19년 기준 총기에 인한 사망자가 1,292명으로 집계

○ 인도-UN, ‘첨단기술 이용 테러대응’ 논의 예정

- UN 안보리 산하 대테러위원회(CTC)는 10.28부터 인도 뭄바이·뉴델리에서 테러대응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, 주요 의제로 3D프린팅·AI·합성생물학·드론 등 첨단기술 이용 테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

아프리카

○ 에티오피아, 티그라이 叛軍-아프리카연합(AU) ‘평화협상’ 예정

- 10.6 티그라이 叛軍은 에티오피아 내전 종식을 위해 아프리카연합(AU)이 제안한 평화협상에 수용할 용의가 있으며, 이번 주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평화협상에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
- * 내전은 '20.11월 시작, 협상 성사시 내전 발발 후 첫 공식 회동이 될 전망

○ 아프리카연합, 소말리아에 ‘대테러 작전본부’ 설치

- 10.9 아프리카연합(AU) ‘소말리아 과도기 지원단’(ATMIS)은 소말리아에서 준동하는 알샤바브에 대응하기 위해 소말리아 정부군과 함께 합동작전본부(JOCs)를 설치했다고 발표
- * 8.20 모가디슈市 소재 하얏트호텔에서 알샤바브의 폭탄·인질테러로 15명 사망

파키스탄 탈레반(TTP),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 테러 공격

- '09.10.12, 파키스탄 북서변경주 상글라 지구의 한 시장에서 군용 차량 겨냥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41명이 사망하고 45명 부상
 - * 범인은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군용차량 대열로 끼어들어 자폭, 군인(사망 4, 부상 6)보다도 무고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인명피해 초래(사망 37, 부상 35)
- 同 사건은 약 2달 전인 8.5 TTP 지도자 「바이톨라 메수드」가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자, 뒤이어 수장이 된 「하키몰라 메수드」가 복수를 천명하고 아래와 같은 연쇄 보복테러를 자행한 이후 발생

- 10.5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UN 세계식량계획(WFP) 현지 사무소 대상 자살폭탄 테러(5명 사망)
 - 10.9 북서변경주 주도 페샤와르 소재 시장內 약 100kg 가량의 폭탄을 적재한 차량 폭발 테러(42명 사망·100여명 부상)
 - 10.10 이슬라마바드 인근 라왈핀디 소재 육군 사령부 청사를 습격, 인질극 테러(19명 사망)
- 파키스탄軍이 본격적인 소탕작전 계획을 발표하자 TTP는 보복 공격을 더욱 늘리겠다고 공언하며, 양측간 유혈충돌 가능성은 더욱 확대

< 파키스탄 탈레반(TTP) >

- (결성) '07. 12 알카에다가 '파키스탄의 FATA(부족자치주) 지역內 군사작전에 대한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'를 위해 13개 소규모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간 접경지역(쿠나르 지역 등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內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을 자행, 중앙 집권적인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 각 부족별 조직이 자율적으로 점조직 활동
- (주요테러) △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 △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 대상 자폭테러 △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 △'14.6 카라치시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 등